

앙골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km ²	GDP	1,392 억 달러 (2013년 추정)
인구	19.63 백만명	1인당 GDP	6,485 달러 (2013년 추정)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93.74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DR콩고, 콩고(북), 잠비아(동), 나미비아(남)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독립운동단체였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간에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으며, 1976년 구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은 MPLA가 단독 집권한 후 중앙정부(MPLA)-반군(UNITA) 간 내전이 2002년까지 27년 간 지속되었음.
-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위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GDP의 60%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미비와 인적자원 부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고유가 및 비석유부문의 성장으로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률 시현

- 2005~08년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 OPEC의 감산결정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180만 b/d로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4%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4%로 다소 회복되었으며 2011년 들어 석유부문 외에 농업, 운송업, 건설업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9%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금, 인산염, 구리, 철 등 광물의 생산량 증대와 LNG 수출 증가로 6.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3년에도 원유 및 LNG 생산량 증가세에 힘입어 6.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생산량 변동추이: 190만 b/d(2008) → 180만 b/d(2009) → 186만 b/d(2010) → 173만 b/d(2011) → 178만 b/d(2012) → 179만 b/d(2013 추정)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2013 ^f
경제성장률	2.4	3.4	3.9	6.8	6.8
재정수지/GDP	-8.3	4.6	8.7	4.5	1.2
소비자물가상승률	13.7	14.5	13.5	10.3	8.9

자료: IMF, EIU.

□ **고유가와 원유수출량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

- 재정수지는 2006~08년에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GDP 대비 8.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4.6%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가 GDP 대비 8.7%로 대폭 확대되었음.
- 이후에도 원유 및 LNG 수출 수입(收入)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회보장정책 및 인프라 투자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GDP 대비 흑자 규모는 2012년 4.5%, 2013년 1.3%(추정)로 축소되는 추세임.

□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하향 안정세**

- 90년대 내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수백 % 대에 이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지속하였으나 1999년 5월 중앙은행이 신환율 및 통화정책을 도입하고 2003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리 수로 떨어짐.
-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해소된 이후에도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해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노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2013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석유부문이 GDP의 60%, 재정수입의 75%, 총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

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오랜 내전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투자환경 열악

- 오랜 내전(1975~2002)으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도로, 항만 등)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내전 종료 이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 상태(도로포장률 20% 이하)이며, 철도 운행 및 전력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2014)에 의하면, 앙골라는 총 148개국 중 142위의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도로 수준 139위, 전력공급 수준 143위, 이동통신 가입자 수 138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사회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최하위인 148위를 기록하였음.

□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인적자원 부족

-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의 혜택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고 있어 앙골라 국민의 54.3%가 하루 1.25달러(PPP)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2013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앙골라는 총 187개국 가운데 148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또한 장기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며 성인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이 4.7년에 불과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앙골라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27억 배럴로 세계 16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이며 연안 해저에서 신규 유전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또한 앙골라는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2012년 기준으로 연

간 약 830만 캐럿(11억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여 세계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6.5%를 점유하였음.

- 주로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Lunda Norte와 Lunda-Sui 주에서 다이아몬드 생산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alange, Ulge, Moxico, Cuyando, Cuando Cubango 주에서 탐사가 진행중임.
- 또한 금, 석탄, 구리, 천연가스, 철광석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Soyo 지역의 대규모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2013년 완공, 생산을 개시하여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연안·콩고강 횡단 가스 수송망 건설 및 비수반가스¹⁾ 개발 등을 포괄하는 앙골라 최대 규모(총비용 100억 달러)의 LNG 플랜트로 향후 연간 약 52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임.

다. 정책성과

□ 경제구조 다변화,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

- 석유, 다이아몬드 등 특정 자원에 치우친 경제구조의 다변화,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대 앙골라 석유산업 투자국의 다변화, 공기업 민영화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5개년(2013-17) 국가발전계획, 앙골라 투자(Angola Invests) 프로그램, 5개년(2013-17) 전력/수도개발 사업, 제2차 공기업 민영화 사업(2014-17)을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교통인프라 재건을 위해 벵겔라 철도 개선 사업(투자규모 20억 달러), 제2의 항구인 로비토 항만 현대화 사업(투자규모 18억 달러), 수도 루안다를 중심으로 각 지방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1) Non-associated gas. 원유를 수반하지 않고 가스만 산출되는 천연가스.

□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농민 지원대책 실시

- 앙골라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여 농업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오랜 내전으로 인해 농업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뢰 매설로 인한 토지사용 제한, 빈약한 도로 사정에 따른 높은 유통비용 등의 문제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식료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이에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농업 종사자를 위한 소액대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강화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정부가 5개 상업은행을 통해 총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농민 앞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2011년 가뭄으로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 상황임.
 - 정부는 농민들의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 시도하고 있으며, 국영 소매업체인 Nosso Super에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는 Presild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공급이 불규칙적이고 가격이 비싸 중단되었음. 현재는 소규모 농민들이 중앙화된 특정 지점에 농산물을 운송하면 구매자가 직접 구매하는 Papagr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원유수출 증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 2008년까지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황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음. 그러나 2009년에는 원유수출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여 GDP 대비 10%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은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며 GDP 대비 9.1%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고유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339억 달러) 대비 39% 증가한 471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6%까지 확대되었음.

- 2012년에도 고유가와 원유 수출량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4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내수요 증가와 투자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 규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2013 ^f
경 상 수 지	-7,572	7,506	13,085	13,851	10,543
경 상 수 지 / G D P	-10.0	9.1	12.6	12.1	7.6
상 품 수 지	18,168	33,928	47,082	47,374	44,609
수 출	40,828	50,595	67,310	71,091	70,698
수 입	22,660	16,667	20,228	23,717	26,089
외 환 보 유 액	13,126	19,226	27,473	30,983	32,369
총 외 채 잔 액	18,875	21,120	23,676	24,907	26,550
총 외 채 잔 액 / G D P	25.0	25.6	22.7	21.8	19.1
D S R	3.8	3.9	3.4	4.0	4.4

자료: EIU, CRAM.

□ 원유수출에 따른 외화수입 증대로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2009년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원유수출량이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국제유가의 회복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2009년말 대비 2.4배 수준인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앙골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고유가로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3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였음. 이 같은 정부의 상환노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5년 38.6%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현재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D.S.R.도 3~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인민해방운동(MPLA)과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안정적인 장기집권

- 1979년부터 인민해방운동(MPLA)과 산토스(Santos) 대통령이 장기집권해오다 2012년 8월 총선에서도 압승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산토스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아래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신헌법이 대통령 재임을 중임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2022년까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폐지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간선제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2012년 8월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의 71.84%를 획득하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MPLA의 당수인 산토스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산토스 대통령은 올해 71세의 고령으로 2013년 7~8월 및 11월 두 차례 공식적인 이유 없이 해외에 체류하며 국가행사에 불참한 바 있어 건강에 및 후계 구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부족

-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앙골라 정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미비를 지적하며 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현 앙골라 정부의 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일관성 부족과 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임.
- 2012년 1월에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07~10년 중 앙골라 정부지출 중 약 320억 달러의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에 따르면, 앙골라의 투명성 순위는 177개국 중 153위를 기록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전후 복구사업과 난민문제 해결 등 사회안정 대책 미흡으로 사회불안요인 잠재

- 독립투쟁(1961~1975), 내전(1975~2002) 등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시대 구축되었던 모든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 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임. 이에 따라 앙골라는 전후 복구사업과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내전이 종료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과 이재민 300여만 명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내전 기간 중 반군이 앙골라 전역에 6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UN의 광범위한 지뢰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만 3천여 개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갈등 격화

- 2013년 11월 제1야당인 UNITA가 주도하고 여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동참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하여 야당 당원 1명이 숨지고 총 120명이 구금되었음. 이러한 시위 진압은 시민사회의 분노를 일으켜 향후 추가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금번 시위는 2012년 벌어졌던 참전 군인들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2명의 전직 군인이 정부에 의해 납치, 고문 및 살해되었다는 정부문서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문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앙골라 정부의 국제적인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주변국과 양호한 관계 유지

- 미국과는 원유 공급을 매개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은 물론 상업차관 제공을 통해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네만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국내정치의 안정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군사강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역내 분쟁 해결에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프리카 역내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제1위 아프리카 교역국으로서 긴밀한 관계 유지

- 2003년 중국이 앙골라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 및 크레딧 라인 (credit line)을 설정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 (건설, 전력, 광업)들의 대 앙골라 진출 또한 활발함.
- 2012년 현재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며 앙골라 수출의 45.8%, 수입의 20.8%가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음. 내전이 종료된 이후 중국은 앙골라 정부가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앙골라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1단계 사업으로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건설 등 사회인프라 분야에 5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였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농업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추가 차관을 제공한 바 있음.

□ 자원 개발을 둘러싼 DR콩고와의 국경 분쟁 진행 중

- DR콩고는 앙골라가 콩고 영해내 유전(약 4000km²)에서 일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며 앙골라 측에 해양경제 관련 회담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2013년 4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Sonangol과 DR콩고 국영석유회사 Cohydro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 블록 중 일부인 14구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음. 양국 간의 경계 문제는 현재 UN 중재에 제출된 상황으로, 해양경계 공동이행지역 설정은 2014년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과거 수 차례 리스케줄링 경험

- 1989년 파리클럽의 공적채무 4.5억 달러 리스케줄링 외에 1989~2007년 중 민간채무 19.9억 달러를 리스케줄링 하는 등 수 차례의 채무 재조정 경험이 있음.
- 정부는 고유가에 기인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이용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3억 달러(1989~2006년 사이 발생한 채무 연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 (2013년 3월 말 기준)

□ OECD 회원국 ECA의 대 앙골라 지원현황(OECD, 2013년 3월 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1억 7,210만 달러(연체금액 10만 달러)
- 중장기: 총 지원잔액 32억 9,430만 달러(연체금액 40만 달러)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12년 10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 회의에서 정부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제유가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원유산업 호황 등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앙골라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2013년 6월 개최된 CRE 회의에서 동 등급을 유지하였음.

- Fitch는 2011년 5월, S&P는 2011년 7월에 앙골라의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Moody's는 2011년 6월 B1에서 Ba3로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으며 국제유가에 민감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 안정적인 석유 수입(收入)을 통한 경제다변화 정책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 전망 등을 근거로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3.12)	C2 (2012.7)
OECD	5 (2013.6)	5 (2012.10)
S&P	BB- (2012.8)	BB- (2011.7)
Moody's	Ba3 (2013.8)	Ba3 (2011.6)
Fitch	BB- (2013.11)	BB- (2013.5)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중·단기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제 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 1. 6 (북한과는 1976. 4. 15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3), 대한경제협력기금 차관('00)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최근 증가세

- 2012년 우리나라의 대 앙골라 교역금액은 전년 대비 약 2.5배 규모인 5억 5,44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0억 8,153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LPG, 석유제품 등으로 교역 증가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 석유제품 수출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한·앙골라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10	주요 품목
수 출	217,987	414,873	1,001,38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수 입	2,529	139,542	80,147	LPG, 석유제품
교역규모	220,516	554,415	1,081,53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3년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15건, 10,323천 달러

V. 종합 의견

- 앙골라 경제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증대 및 비석유부문 성장에 따라 최근 6%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원유수출 수입에 힘입어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모두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또, 고질적인 문제였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 정치적으로는 내전 이후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MPLA와 산토스(Santos)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도 압승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산토스 대통령의 건강 문제, 정치권의 부정부패 및 시민사회 탄압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외환보유액 증가세, 경상수지 흑자기조, 낮은 D.S.R 수준(2012년 4.0%)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OECD 및 3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2011~12년에 걸쳐 앙골라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이후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등 국제신인도가 향상되었음.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